

건축의 문화적 현대화에 있어 신화와 기호의 의미에 관한 연구

-철학자 카시러와 기호학자 퍼스의 사유방식을 중심으로-

변 태 호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주제어 : 신화, 신화적 지각, 기호, 유기적 결합, 언스트 카시러, 찰스 샌더스 퍼스

1. 서론

돌이켜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모더니즘 건축'(Modernism architecture)이 만든 현실과 이론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뒤에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아마 소비적인 역사적 기호들의 무절제한 복제와 기술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동일한 형태의 재생산인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환경 사이에 이질(異質)됨이나 무의미(無意味)함 그리고 진실 되지 못함과 같은 2차의 감성적 현상을 남겨두었다. 결과적으로 현대건축은 기술적 힘이나 개인적 취향에 의해 결정되는 상업적 문제로 전락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예술에 대한 철학자 니체(Nietzsche)의 허무주의(nihilism)가 현대건축과 문화의 비평적 관점이 되어버린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건축 이론가 델리보 베슬리(Dalibor Vesely)는 이러한 우리의 혼동과 허무주의의 근원이 현대건축과 기술 그리고 미학 사이의 모호한 관계와 그 역사적 진행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 그리고 이러한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의 많은 이론가들은 건축이 '사회의 신화 윤리적 토대들'(mytho-ethical nucleus of a society)을 미묘히

파괴시킨 '기술적 현대화'(technical modernization) 보다는 '문화적 현대화와 문명화'(cultural modernization and civilization)에 참여해야하며, 무엇보다 '인류의 윤리적이고 신화적인 토대들'(ethical and mythical nucleus of mankind)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그에 기초한 훌륭한 문화의 창조적 유전인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²⁾ 또한, 건축의 형태표현에 있어도 형태의 수학적이고 미학적인 표현 보다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표상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신화-시적 상상력'(mythopoetic imagination)과 '존재론적 구축'(ontological construction)을 강조하고 있다.³⁾

현대건축의 올바른 역사적 진행과 형태의 시적 구축을 위해, 이런 점에서, 신화(myth)에 대한 강조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여러 이론가들의 글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으며, 그들에게 신화는 이제 건축적 형태의 구축과 해석을 위한 핵심적 요소가 된 듯하다. 무엇보다 그것은 하이데거(M. Heidegger)가 강조하는 존재의 현존을 위한 '장소(place)'의 개념이나 프램톤(K. Frampton)의 주장처럼 '비평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를 가

2) Kenneth Frampton (1983). 현대문화의 본질성에 대한 비판은 철학자 Paul Ricoeur의 책을 참조. Paul Ricoeur (1965), p.277.

3) 이와 유사한 비평론은 대표적으로 다음의 글들을 참조. Dalibor Vesely (1985), p.21-38. Demetri Porphyrios (1982), p.51-56, Alberto Perez Gomez (1990).

1) Dalibor Vesely (1985), p.21-38.

능케 하는 '동기적 힘'(motive power)인 동시에 건축 형태와 공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에 대한 깊은 강조와 많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축의 글들에 나타나는 신화란 단어의 사용은 간혹 모호하고 이해가 혼돈스러우며, 무엇보다 신화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건축적 논의가 없었으며, 그로 인해 각자의 주관적 이해에 의존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아마 신화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철학적 사유의 문제로만 지금까지 놓여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이러한 신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로 인해 신화에 대한 건축적 의미나 이론적 기초를 분명히 하려하며, 둘째 신화는 건축을 포함한 인간의 문화형태에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 보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당연히 지금까지의 철학적 사유를 기초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신화에 대한 역사는 철학의 역사만큼 오래되고 또 방대하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는 신화의 현상학적 실체에 대한 논의나 원인론(etiologica) 그리고 과학적 어구로 신화의 구조적 근원에 대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대표적인 몇몇 철학자들의 생각들, 특히 철학자 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의 신화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분석하려 한다. 특히, 카시러의 사유는 한편으로는 세계의 '문화적 문화'를 위해 과학에 기초를 둔 합리적 사고보다는 신화적 사유를 강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규범들의 단절 보다는 연속적 진행을 위해 신화의 기호 해석학적 이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무엇보다 본 논의에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카시러의 이러한 사유체계는 이전의 신화에 대한 인류-철학적(anthro-philosophical) 연구들에서 보여주는 낭만적 해석과는 달리, 현대의 다양한 문화발생에 대한 객관-상대적 해석의 가능성과 무엇보다 의미론적인 면에서 현대건축의 형태 표상(representation)에 관한 문제에 새로운 이론적 기초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더욱 그 중요성과 우리의 관심을 끈다.

본 논문은 건축 계획이나 특히 설계에 대한 디자인 방법론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신, 신화의 개념에 대한 건축의 인식론적 연구를 하려는 것이며, 특히 별개의 학문영역으로 존재하여오던

신화론과 기호론 사이에서 신화를 기호론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려는 건축의 첫 시도이다. 이러한 이론에 기초한 건축의 실질적 예나 계획설계의 방법론적 설명은 또 다른 연구의 주제가 되므로 이곳에서는 제외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오늘의 무절제한 상징적 모티프의 사용이나 형태의 '도구적 표상'(instrumental representation)⁴⁾ 방식에 반(反)하여 신화와 기호에 대한 그리고 특히 지역적 문화의 연속을 위한 방법과 기호론적 아이디어 사이의 좀 더 확고한 건축론 특히 인식론적 이론의 기초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신화에 대한 고대의 이해

2-1 과학적이며 윤리적인 진실로서의 신화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란, 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관적 지각'(self-consciousness)이나 '객관적 지각'(objective-consciousness)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을 이루려는 중요한 목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아실현'이란 항상 인간의 '존재'(self-existence)라는 형이상학적 질문에 연관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보면, 철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란 어떻게 존재하며, 무엇이 인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항상 답하려한 것 같다. 그러나 철학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세계를 분명히 밝히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항상 '현상적 실제'(Phenomenal Reality)와 '실제의 신화적 전이'(Mythical Transformation of the Reality)라는 두 상반된 존재영역에 대한 직면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철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역사의 초기에 인간의 세계란 신화적인 어떤 힘들의 총체가 표상되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로 인해 이 시기 동안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지금처럼 신화적이며 철학적인 무엇으로 양분되어 있지 않았다. 그 후 초기 그리스시기에 와서야 이러한 두 개념으로의 사유는 'μυθη'이라는 개념 내에서 분명히 표현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비록 이 시기에

4) 본문에 사용된 '도구적 표상'이나 '상징적 표상' 그리고 '미학적 표상'이란 말은 베슬리의 어휘를 인용한 것으로 그것들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는 다음의 들을 참조. Dalibor Vesely (1985).

각각의 사유형식에 대한 영역이 독자적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신화적인 것이란 어떠한 것에 대한 발단(發端)이나 기원(起源)적인 영역을, 반면 철학적인 것이란 원리(原理)나 공리(公理)에 관한 영역을 각각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후 '자아인식'(self-awareness)에 대한 철학적이해가 증가되면서, 이성(logos)에 대한 새로운 영역은 점차적으로 신화적 신들의 세계와 그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하며, 이 경우 서로 다른 두 세계는 서로의 영역을 각각 정당화 해주기 위한 필요세계로 공존하게 된다. 그럼에도 신화적 세계는 5세기가 지나도록 특히 소피스트(the Sophists)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들에게 신화란 "사색적이며, 과학적이고 혹은 윤리적이기도 한 진리의 망토"⁵⁾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플라톤의 경우에도, 신화란 "지혜의 실행"(a mere exercise of the wit, a gross and labored wisdom: *ἀγροίκος σοφία*, Phaedrus 229D)⁶⁾으로 정의되어, 신화 속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언어들을 통해 세계는 그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들을 들어내 보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플라톤에게 신화의 가능성이란 현대의 정밀과학에서 논하는 진리의 개념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그의 의미는 분명 물질적인 어떤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정신적 세계와 관계된 무엇이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식으로서의 독특한 인간의 정신적 기능, 즉 본질 인식 및 언어적 드러냄으로서의 어떤 필요기능이라 말할 수 있다.⁷⁾

그러나 서양철학이 기독교 중심세계인 중세와 인본주의를 강조한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이성'(logos)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것보다는 인간의 주관주의에 더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그 후 점차 인간의 영혼적이며 의식적인 세계에까지 더욱 더 확장되며, 마침내 신화론은 철학의 범주를 벗어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2-2 18, 19세기의 신화에 대한 사유

5) Ernst Cassirer (1955), p.2. "a cloak for a speculative, scientific, or ethical truth."

6) Ibid.

7) Ibid.,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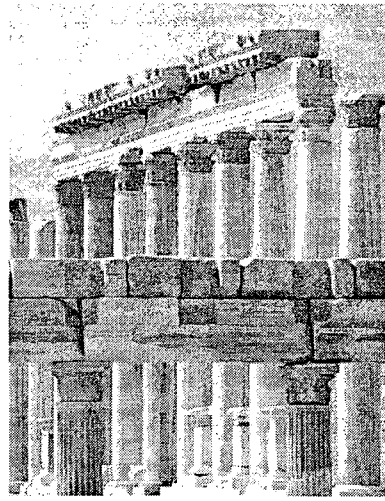


그림 1 트라이안 신전, BC 3세기: 고대의 경우 신전을 세움에 있어 가장 대표적 구축형식은 비례에 있어왔다. 그리고 그 비례는 다시 대우주와 소우주 속에서 발견-해석된 상징적 수와 기하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비례 특히 수와 기하학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신화적 해석을 통해 받아들인 신의 이성이며 대상에 대한 본질인식 즉 진리인 것이었다.

신화론과 철학적 범주가 동일시된 이 시기동안, 고대와 중세를 거친 신화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특히 18세기에 이르러 인간의 문화적인 세계에 관한 철학적 관심으로까지 확장되며, 이를 언급할 때면 우리는 이 시기에 두 명의 중요한 낭만주의적 철학자를 만나게 된다. 그중 하나는 언어에 대한 현대철학의 창

시자라 할 수 있으며, 그의 대표적인 상징에 관한 이론을 17세기 합리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지암 바티스타 비코(Giambattista Vico, 1668-1744)이다. 먼저, 비코의 낭만적 사유 내에서 가장 중심된 주제는 진정한 '인간다움의 원리'(principles of humanity)와 필연적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간 집단의 일반적 본성'(common nature of nation)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

데카르트에게 물질적인 자연의 영역은 인간적인 영역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듯, 비코에게 있어서도 인간 자신의 가장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본성(nature)으로서 '인간다움'(humanity)과 함께 인간의 정신적 세계는 자연적인 법칙의 그것과는 다른 그 자체 발전에 대한 자율적이며 본질적인 원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경우, 진실된 '인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화나 신화적

8) Burton Feldman and Robert D. Richardson (1972), p.50.

인 인간이야말로 합리적이며 문명화된 인간보다 더 중요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비코는 신화를 인간 지식의 원천이며 진정한 합리성의 근본으로 받아드린다. 이러한 가정 위에서, 비코는 신화와 인간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접근방식을 발견하게 되며, “인간 문화에 대한 진정한 개체는 언어와 예술 그리고 신화라는 세 가지의 화음적 요소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표상되어지는 것”⁹⁾으로 주장하게 된다.

또 다른 대표적인 낭만주의 철학자로, 셸링(F. W. J. Schelling, 1775-1854)을 들 수 있다. 칸트(E. Kant)가 도덕이나 예술을 위해 순수 존재와 이성을 사유하였듯이, 셸링의 신화에 대한 철학적 의문은 신화와 같은 상징적 표현의 근원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게 신화란 발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인간 의식(consciousness)의 필연적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화 그 자체에 담겨져 있는 물질적인 개념이나 내용보다 그 근원으로서 우리의 의향과 믿음 그리고 지각적 의식의 태도와 함께 모든 현상들에 대한 우리의 경험방식이다. 그래서 신화에 대한 은유적(metaphorical) 이해가 아닌, 셸링은 신화적 형상들(figures)을 그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산된 결과와 같은 것으로 본다. 그것은 그에게 바로 “인간 정신의 자율적인 배열들”(autonomous configurations of the human spirit)¹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시에 인간 삶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셸링에게 있어, 어떤 사물에 대해 신화적인 측면과 자연적인 측면이란 서로 다른 두 개의 이해방식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연적이란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그래서 아직 인간의 정신에 관계하지 못한 단계인 반면, 신화적이란 사물들의 실체(reality)를 밝히는 것으로, 그것이 인간 정신에 대해 여러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이해 단계를 말함이다. 그래서 신화란 그에게 한 마디로 진리가 밝혀지고 그 스스로 실현(實現)화되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현(實現)적 과정에 있어 각각의

단계는 인간정신과 영혼의 진보에 있어 필연적인 것이며, 비록 그것이 어떤 특정의 시간에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지라도 그것은 스스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지니고 있는 것이다.

셸링에게 신화란 인간의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지각의식’(subjective and objective consciousness), 즉 인간의 이차적 본성을 통해 그리고 “절대성의 자기현시(顯示)”(self-revelation of the absolute)¹¹⁾를 통해 이해되어진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configured form)를 의미한다. 이 경우 신화란 그에게 그 내부에 신이 완전한 신으로 출현되어질 수 있는 인간의 사유(思惟)와 신에 대한 인간 의식(意識, consciousness)의 실재적인 관계가 표현되어 있기에 그것은 철학적인 진리성을 지닌 그러한 것이다.¹²⁾

3. 신화에 대한 현대적 관점들

18, 9세기의 대표적인 신화의 절대성 대한 비코나 셸링의 낭만적 탐구와 해석은, 다시 20세기에 들어오면 여러 학문적 분야에서의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해석들로 발전하게 된다. 그들 중 잘 알려진 몇 가지의 이론들을 예로 들면, 신화를 인간정신의 자연스러운 선천적 형태로 인식하고 특히 신화의 자연적 발생원인을 강조하는 ‘심리학적 탐구’(psychological inquiry), 신화의 표현이나 그 해석적 측면보다 기능적 측면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바스티안 이론’(Bastian’s theory). 신화에 대한 인

11) Ibid., p.9-10

12) 셸링의 이상주의적 사유에 의하면 우리가 자연이라 부르는 것은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글들 뒤에 숨겨져 있는 시(詩S)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러한 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수수께끼를 풀어보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놀랄만한 미망(迷妄) 속에서 그 스스로 날아가 사라져 버리는 인간 정신의 오딧세이와 같은 긴 서사시를 만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셸링에게 있어 이러한 자연의 비밀스러운 글들은 바로 신화의 연구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그래서 신화란 신에 대한 순수한 사유의 오딧세이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카시러는 셸링의 신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부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카시러에게 있어 셸링이 생각하는 신화의 개념 속에는 자연들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차이성(differentiation)’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셸링이 생각하는 ‘절대성의 자기 발현’(self-revelation of the absolute) 속에서 진정한 진실은 흡수되어 녹아져 버리기 때문에 셸링의 신화는 2차적인 ‘자연성’(nature)라고 비평한다. Ibid., p.9-10.

9) Ernst Cassirer (1955), p.3. “... the true unity of human culture is represented in the triad of language, art, and myth.”

10) Ibid., p.4.

식론적 측면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비평적 인식이론’(theory of critical epistemology), 신화와 말의 은유적 관계를 강조하는 ‘막스 물러 이론’(Max Müller’s theory)¹³⁾ 그리고 언어와 신화적 요소들의 불가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유세너 이론’(Usener’s thought)을 들 수 있다.

특히, ‘유세너 이론’은 표현되어진 신화적 요소와 언어 사이의 관계에 있어 그것에 대한 기호적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화론이란 신화에 대한 이론(*λoγoς*)으로, 특히 종교적인 표상들에 대한 형태론(morphology)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목표는 바로 신화적 상상(mythical imagination)에 대한 법칙이나 필연성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민속적 종교들에 나타나는 상상적 형태들, 즉 ‘신화론적 구성들’(mythological configurations)을 밝혀내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상적 형태들은 항상 신화적이며 언어적인 표상에 기인되어져 있고, 그러한 표상으로서의 이미지와 기호들은 바로 세계의 대상들을 그때그때 이해-해석하는 인간정신의 선형적 단편들(transcendental fragments)인 동시에 주장들(manifestations)인 것으로 유세너는 설명하고 있다.¹⁴⁾

4. 카시러의 신화에 대한 해석학적 사유

4-1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의식표현의 발견으로의 신화

신화의 대략적인 역사적 전개로 지금까지 논자가 요약한 다양한 이론들 외에도 현대에 들어 신화와 문화의 상징적 형태와의 관계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사유는 철학자 언스트 카시러(Ernest Cassirer)의 글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이 전의 철학적 가정(假定)들과는 달리 카시러의 관심은 특히 과학과 같은 객관적 측면에서 인간의 문화 현상들과 그 객관적 내용들 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문화적 삶’(cultural life)의 모든 형식들을 결정하는 그리고 그 스스로 명백한 논거와 같은 ‘정신적 법칙의 총체’(the unity of spiritual principle)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경우 카시러에게, 신화란 우주의 내, 외적 세계의 객관적 표현들, 특히 그 표현적 힘 혹은 새로이 드러나는 형태들에 내포되어진 정신적 힘과 같은 것으로, 바로 ‘정신적 법칙의 총체’를 찾을 수 있는 적합한 경로가 된다.¹⁵⁾

즉, 현실 혹은 실재의 세계란 정적으로 고정된 상태가 아니며, 단지 독자적인 특성으로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 ‘유기적 결합’(configuration)의 진행과정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적 구조의 변화는 계속적으로 새로이 형성되어지는 인간의 지적(知的) 과정 특히 우리의 경험적 동일체뿐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 인상의 방식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화적 자각’(mythical consciousness)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절대적인 ‘객관적-존재’란 존재치 않으며, 모든 지각된 요소들이란 영원한 부정의 서클 속에서 단지 상대적 의미만을 지니게 된다. 그들은 그래서 ‘현실체로의 진실성’(the truth of the reality)을 위해 단지 그때그때 마다 사용되는 ‘특별한 필요성’(a particular necessity)과 같이 새로이 나타내어지는 것이다. ‘신화적 자각’에 대해 카시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타나 있는) 현상들을 통해 그것을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그것을 정신의 특별한 구조적 형태의 동일체를 통해 설명해야만 한다. ... (그래서) 신화적 자각의 형태를 찾는다는 것은 모든 특징의 구조적 배열들이, 그것들의 광대한 경험적 다양성과 함께, 지배되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본질의 총체를 찾는 것이다.”¹⁶⁾

카시러의 이러한 해석학적 사유에 따르면, 순수한 지적 경로를 통한, 즉 신화를 통한 정신의 일원

13) 막스 물러의 이론은 특히 신화와 단어 사이의 은유적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어의 전달에 있어 양면적 감정 혹은 양의성은 사람들에게 상상과 마침내 언어의 새로운 형태를 탄생시키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가 신화의 ‘유기적 결합’(configuration)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물러는 설명하고 있다.

14) Ibid.,p.23.

15) Ibid.,p.235.

16) Ibid.,p.11-12. “It is not enough to demonstrate it empirically through the phenomena; we must explain it through the unity of a specific structural form of the spirit. ... To seek a form of mythical consciousness ... is solely to seek the unity of the spiritual principle by which all its particular configurations, with all their vast empirical diversity, appear to be governed.”

적 구조의 관찰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 내 모든 사물들에 대한 깊은 통찰로 유도하며, 이러한 통찰을 통해 관찰된 모든 개개의 지각요소들은 사물의 특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해석과 인식의 결정자로 이해하게 된다. 더 더욱 이러한 신화의 구조에 대한 관찰은, 인류가 특정한 자의식(self-consciousness)과 객관적 의식을 통해 발전해 온 여러 경로들 중 하나를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동기(reason)와 진실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카시러는 강조하고 있다.

4-2 다양한 문화적 형태를 구성하는 기호로서의 신화적 단편들

물러와 유스너의 이론에 부분적으로 기초해서, 카시러는 신화의 본질을 “인간 정신의 일원적 힘: (즉) 출현된 객관적 사물의 모든 다양성들 속에서 그 자체를 명언하는 해석의 한 본유적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¹⁷⁾ 이러한 논리를 통해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세계의 문화형태에 대한 그의 이해는 당연한 귀결로 나타난다: “다양한 문화적 형태들-(즉) 신화와 언어, 예술적 구성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론적 개념들의 형식과 그것의 관계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핵심적 요소는 바로 기호가 모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발휘한다.”¹⁸⁾ 이런 점에서 볼 때, 카시러에게 신화, 특히 신화적인 단편 즉 신화를 통해 발견된 해석의 조각이란 그가 지적하듯이 기호(sign)와 같은 것이며 그것은 건축물들처럼 세계의 다양한 문화적 형태들의 시작을 만들어 내는 창조의 근원과 같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형태들에 대한 신화나 기호의 창조성은 언어 기호학적 어휘로 좀 더 분명히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 같다. 언어학적 사유(linguistic consciousness)에서 볼 때 인간은 세계에 대한 ‘유기적 결합’(configuration)의 한 형태로 단어와 언어를 창조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물을 이

해하고 다시 그것에게 의미를 되돌려 부여하는 방식으로, 또한 더 나아가 사물들의 세계에 융화하고 친숙해지기 위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언어를 놓아 두었다. 이러한 가정에서 볼 때, 언어란 인간에게 신화적이며 예술적인 표현들을 위한, 즉 세계의 ‘유기적 결합’(configuration)에 대한 가장 근원적 형태인 동시에, 여기서 단어(word)란 기호(sign)와 기의(signified)로서 대상과 의미 사이에 즉각적으로 서로에 상응-융합하는 ‘등가(等價)의 단일체’(an equivalent unity)로 말 할 수 있다.



그림 2 아테네 에렉테이온 신전의 카리아티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카리아의 여인모습을 지붕을 바치는 기둥에 기호적 혹은 언어적으로 사용하여 건축에 상징성 및 심미적 다양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에서 볼 때, 신화는 항상 시학의 한 형태로 작곡된 이야기와 같은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의 기호와 같이 사물을 지시하는(signify) 단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configured form) 즉, 기호들의 시적으로 질서 잡힌 전체(whole), 혹은 ‘기호들의 주의(主義)’(doctrine of signs)¹⁹⁾라 주장할 수 있다.

17) Ibid.,p.235. “myth as a unitary energy of the human spirit: as a self-contained form of interpretation which asserts itself amid all the diversity of the objective material it presents.”

18) Ibid.,p.23. “an essential element of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diverse cultural forms is that the sign exerts an active, creative force in all of them - myth and language, artistic configuration, and the formation of theoretical concepts of the world and its relationships.”

19) Justus Buchler(1955),p.98.

나는 지금까지 신화의 본질에 대해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카시러의 문화형태에 대한 사유를 통해 신화의 기호학적 해석 가능성 특히 신화의 해석단편을 기호로 이해하는 카시러의 인식론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신화를 기호들의 시적 결합으로 해석 결론한 만큼 이쯤에서 우리는 좀 더 나아가 기호(sign)에 대해 그 본질적 특성, 특히 이 경우 기호로서의 신화들이 새롭게 획득하게 되는 기능적 특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건축적으로도,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한 몇몇 건축가들의 이론에서 기호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있어 왔으나 그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이유로 다음 장에서 기호의 중심적 특성에 대해 다시 짧게 강조해 보려한다. 특히, 기호에 대한 이론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페르디낭 드 소쉬르(F. de Saussure)와 영·미를 대표하는 찰스 샌더스 퍼스(C. S. Peirce)의 이론을 들 수 있으나 여기서는 퍼스의 이론 중 본 논문의 주제에 관련된 일부만을 다루도록 한다.²⁰⁾

5. 찰스 샌더스 퍼스의 기호론과 기호의 '3화음적 특성'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에게 기호란 '기호적 논리'(σημειωτική Logic)나 '준(準)-필수적인 것' 혹은 '추상적인 관찰에 의한 발언'의 또 다른 이름인 동시에, 그것은 사물을 드러내어 나타내는 '표상'(Representamen)이라고 단언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그것의 특성은 인간의 정신적 해석이라는 것을 통해 사물의 의미를 마치 지도를 그리듯 함축적으로 기술할 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매체를 통해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idea)나 혹은 더욱 발전된 또 다른 기호를 낳기도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아이디어는 인간의 사고(thinking)속에 존재하는 감각(feeling)으로의 '구체적 질'(material quality)을 지시하거나 그러한 '질'을 소유하는 사물에 대한 기호 그 자체이다.²¹⁾

20) 기호에 대한 학문은 퍼스나 모리스의 정의에 따르면 semiotics(불어로 sémiotique)로, 소쉬르의 정의를 따르면 semiology(sémiologie)로 사용된다. 따라서 프랑스 구조주의자들은 (광의의 의미에서) 소쉬르의 정의를 따르는 반면 영미 계통의 구조주의자들은 퍼스나 모리스의 정의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어떻든, 퍼스는 기호에 대한 가장 중심적 특성으로 기호의 '3화음적 관계'(triadic relation)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호 혹은 표상(Representamen)이란 하나의 관점 혹은 받아들이는 수용의 능력 속에서 어떤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무엇이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걸며,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 같은 뜻의 다른 기호를 혹은 좀 더 발전된 기호를 창조해 낸다. 그것이 창조해 낸 또 다른 기호를 나는 처음 기호에 대해 '해석 경향'(interpretant)이라 부른다. 그 기호는 어떤 무엇 즉 그 대상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즉) 그것은 모든 사항에서가 아닌, 나는 가끔 표상의 기초 지면이라 불리는 일종의 아이디어의 관점에서 사물을 하나의 대표적인 의미로 나타낸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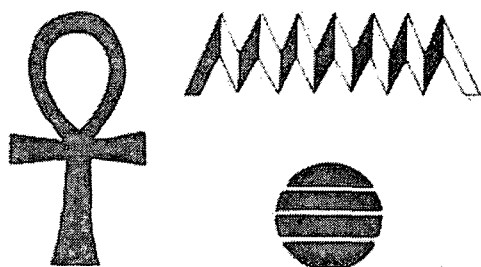


그림 3 기호로서의 이집트 상형문자, 인생(Life)을 의미함.

기호에 대한 퍼스의 논리 근원은 철학적 사고(thinking)에 대해 '방법론적 의문'(methodic doubt)을 강조한 카르테시안 철학(Cartesian philosophy) 즉 데카르트적 논의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해, '명백한 진리'(apodeictic truth)를 얻기 위해 데카르트는 시작(beginning)에 대한 추구, 즉 "스스로 명백한 내부 중심적인 인식으로의 회귀" 혹은 "심사숙고적인 자아"로의 귀환

21) James Hoopes (1991), p.142.

22) Justus Buchler (1955), p.99. "A sign, or representamen is something which stands to somebody for something in one respect or capacity. It addresses somebody, that is, creates in the mind of that person an equivalent sign, or perhaps a more developed sign. That sign which it creates I call the interpretant of the first sign. The sign stands for something, its object. It stands for that object, not in all respects, but in reference to a sort of idea, which I have sometimes called the ground of the representamen."

을 강조한다.²³⁾ 이러한 진행과정 속에서 선입관(prejudice)보다는 의문함(doubting)은 카르테시안적 인식의 시작점이 된다.

그러나 퍼스에게, 데카르트의 주장과 같은 완전한 의문을 동반한 사유의 시작은 불가능한 가설이며, 도리어 철학을 연구할 때 실제로 갖게 되는 모든 선입견으로부터 우리의 의문은 시작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²⁴⁾ 왜냐하면 그에게 모든 종류의 '의문'(doubting)은 우선적으로 어떠한 선입견에 기초할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아이디어들 또한 절대적으로 고립되어진 '스스로의 지식'(self-knowledge)이 아닌 연속적인 체계 혹은 방식(system)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 논법'(reasoning)의 절대적 시작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퍼스의 기호론에 따르면, 인간의 인식(cognition)이란 자연적으로 기호(sign) 혹은 표상(representamen)의 '3화음적 특성들'(three triadic features) - 창조적(Creative), 중개적(Mediate), 영속적(Continuous) -에 의해 구성되어져 있다. 다시 말해, 기호는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에 의해 창조된 복제(replica) 즉 또 다른 기호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호란 하나의 관념적 사물과 같다; (즉) 그것은 일반적이고 초시간적이며 그리고 주관적 생각에 대해 독립적인 것이다."²⁵⁾

위에 언급된 기호의 '3화음적 특성'중 '창조성'(creativity)은,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퍼스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기호의 존재론적(ontological)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데카르트의 본유적 자아(Ego)와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론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항상 복제(replica)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복제란 기호의 자율

적 특성이기 때문에 복제된 것의 의미특성을 결정하되 복제되어진 것들로부터 그 반대로의 의미해석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²⁶⁾ 거기에는 한 방향으로의 계속되어진 진행 즉 해석되어진 복제로의 진행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란 우리에게 의미를 지닌 것들의 물리적 집합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물리적 대상들은 새로운 해석을 기다리는 기호인 동시에 해석되어 복제된 기호가 된다. 그리고 기호로의 그 대상들은 결국 역동적 사고를 통해 해석되어진 물리적 현상들로서 서로 서로에 잠재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표상'(representation)이라 불리기도 하는 '해석경향'(interpretant), 즉 해석자의 기호에 대한 반응 경향은 기호의 존재론적 의미에서 그리고 기호의 '창조적' 특성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해석이란 '선형적 자아'(transcendental Ego)의 활동이 아니라 기호의 '본유적 창조 특성'(self-creative nature)이기에 또 다른 연속된 기호 창조를 가능케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기호의 존재론적 특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호의 창조적 과정 속에 시작과 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퍼스에게 있어 표상 즉 해석이란 바로 이 세계의 모든 변화를 결정하는 창조에 대한 힘인 것이다.

또 다른 기호 법칙의 가장 기본적 특성은 '중개성'(mediation)이다. 기호의 창조적이며 해석적인 특성 때문에 기호와 표상 되어진 대상 사이에는 어떠한 상호 관계, 즉 일명 '중개성'이 존재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표상이란 것이 대상물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적 성질을 중개해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기호에는 그 자체 내에 본유적으로 밝혀낼 어떠한 의미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단지 해석되어진 관점과 같은 것만을 가지고 있기에 대상물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여줄 수는 없으며, 더 더욱 대상이 지닌 순수한 진실적 본성을 표상해 내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 자체 내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그 목적이란 '있는 그대로의 실제적인 대상'(real object as a being-in-itself)과 '기호들에 의해 그 자체가 해석되어진 즉각적인 대상'(immediate object as interpreted itself by

23) Hanna Buczyn 'ska-Garewicz. (1984), p.37. "pointing back to self-evident inner perceptions" or "Ego with its cogitations." 의문을 넘어선 회귀 혹은 판단중지(epoche)를 이행하는 자아(Ego) 그리고 더 이상 의문할 수 없는 근거 혹은 인식의 완전한 개입과 같은 동일한 개념은 현상학에 대한 철학자 에드먼드 후설의 초기 철학적 사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4) Charles Sander Peirce (1965b) p.265, and Hanna Buczyn'ska-Garewicz(1984) p.38.

25) Hanna Buczynska-Garewicz(1984), p.40. "A sign is a kind of ideal object; it is general, timeless, and independent of subjective thinking."

26) Ibid.

signs)의 용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듯 기호의 중재적 능력과 해석을 통한 표상의 창조적 힘은 기호의 세계를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영속적인 현상으로 구성지우고 있다. 그리고 그 '영속성'(continuity)은 기호 스스로의 결여된 현존성 때문에 기호세계의 고유한 본질적 특성이 된다. 해석의 과정을 제외한 기호는 존재하지 않으며, 세계는 항상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표상의 자체 재생산적 과정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호 세계의 영속적 특성에 대한 피어의 말들을 단편적으로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기호의 전(全) 목적은 다른 기호로 그것이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이다."²⁷⁾ "하나의 기호는 또 다른 기호를 생산한다."²⁸⁾ "사고(思考)는 살아 있어야 하며 끊임없는 새로움과 좀 더 높은 해석 속에서 자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고로서 그 자체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²⁹⁾ 사고란 또 다른 사고를 이성적 논의의 계속되어지는 고리 속에서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 같은 고리의 시작과 끝은 분명한 형태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기호세계의 영속성이란 '인식'(cognition)에 대한 시작과 끝을 지시하는 부분이 없으며, 독립적이거나 고립된 인식 또한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어떠한 인간의 사고나 인식도 공허한 비어있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항상 앞서 있던 어떤 생각들에 기초되어 있다. 그래서 "인식이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진 데이터들의 수집이라기보다 해석되어진 것들의 조직적 체계이다."³⁰⁾ 그리고 "영속성이란 ... 인식적 가치의 한결 같음 (혹은 일률적 균등)을 의미한다."³¹⁾ 이런 점에서 볼 때, 기호는 인식의 중재성과 영속성 모두의 가치들을 동일하게 갖으며, 이 두 특성은 피어의 기호론에서 볼 때 기호 세계의 핵심적 가치

를 구성하고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신화와 다양한 문화형태 사이의 관계에 대해 기호 해석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특히 카시러의 신화에 대한 사유를 통해 다양한 문화 형태 특히 상징적 형태의 창조적 힘과 기호적 기능으로서 신화를 소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카시러는 인간을 '상징을 만들어 내는 동물'(animal symbolic)로 그리고 자신의 조화 방식에 따라 물리적 현실을 재조직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징물에 대한 유일한 창조자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에게, 언어적 형태들이나 예술적 이미지들, 신화적 상징들 그리고 종교적 의례들은 모두 인간의 상징적 활동이며 그 자신의 성취물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위적 매체들의 내부적 관계를 통해 인간은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³²⁾

카시러가 생각하는 상징적 활동의 한 예로 언어의 개념을 좀 더 광의적으로 보면, 건축을 포함한 모든 예술작품은 그 자체의 고유 언어를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³³⁾ 그 언어란 대상에 대한 이미지와 그것의 본질적 의미를 표상하기에 분명 인간의 상징적 활동인 동시에 하나의 기호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적 생산물로 신화나 예술 그리고 건축은 모두 인간 존재의 상징적 표명

32) 카시러는 그의 책에서 '상징'(symbol)과 '기호적인 것'(signal)의 차이를 좀 더 분명히 논하려 하고 있다. 카시러에게, 세계에 '조건적으로 반사되어진 것'(conditioned reflexes)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은 인간의 상징적 사고의 본질적 특성이다. 여기서 상징이란 '기호적인 것'(signal)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상징'(symbol)과 '기호적인 것'(signal)은 서로 다른 두개의 논리학으로, '기호적인 것'(signal)은 '존재의 물리적 세계'(physical world of being)에 대한 측면인 반면 '상징'(symbol)은 '의미의 인간적 세계'(human world of meaning)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다. 그래서 '기호적인 것'(signal)은 '조작자'(operators)로, '상징'(symbol)은 '표명자'(designators)로 설명되고 있다. Ernst Cassire (1944), p.32. Also see Emery E. George (1978), p.133. 특히 카시러에게 '조작자'(operators)와 '표명자'(designators)로의 개념적 구분은 초기 기호학자로 널리 알려진 Charles W. Morris의 개념을 인용한 것임.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 "The Foundation of the Theory of Signs," first published in Encyclopedia of the Unified Sciences (1938).

33) 철학자 에메리 조지(Emery George)는 카시러의 사유에 대한 연구에서 "예술은 언어이다"(Art is a Language)라고 단언하고 있다. Emery E. George (1978), p.139.

27) Charles Sander Peirce (1965c), p.191, and Hanna Buczyn'ska-Garewicz(1984), p.44. "The whole purpose of a sign is that it shall be interpreted in another sign."

28) Ibid. (1975a), p.229. "One sign gives birth to another."

29) Ibid. (1975b), p.594. "Thought must live and grow in incessant new and higher translations, or it proves itself not to be a genuine thought."

30) Hanna Buczyn'ska-Garewicz (1984), p.46. "Cognition is a system of translations rather than a collection of separate data."

31) Ibid. "Continuity ... means the uniformity of cognitive value."

(manifestations)이며, 동시에 그 자체의 고유 언어로 사용된 기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configuration)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호들은 역으로 우리의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세계 모두에 다양한 신화적이고 미학적인 표현들과 인상을 제공하게 된다.

다른 한편 예술적 노력은 과학이나 상징적 활동처럼 항상 '추상적으로 함축되고'(abstract) 구체화(concretion)된 형태로의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reality)을 드러내어 놓을 뿐 아니라 인간과 세계 내 사물들의 관계를 재발견하고 생산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술을 통한 이러한 자연의 발견은, 시학(poetry)과 역사(history)의 차이처럼, 우리가 일상에 지각하는 세계에 대해 좀더 본질적 인식으로 다가가려 하며, 특히 단순화(simplification)와 집약화(concentration)를 통해 주어진 현실의 의미와 객관적 법칙을 재창조 하려는 것으로 과학의 자연에 대한 발견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그래서 카시러 또한 예술의 이러한 특성을 "언어와 과학은 현실에 대한 생략형 약호들이다; (그리고) 예술은 집중적으로 함축되어진 그런 것이다"³⁴⁾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에게 예



그림 4 기리코(Chirico). Archaeologist: 고고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미술의 고유 언어를 통해 추상 함축적으로, 즉 기호적으로 표현한 작품.

술이란 '시적인 추상적 함축'(poetic abstraction)의 과정을 통한 현실에 대해 상징적이며 미학적으로 응축된 이미지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응축성은 분명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인 '포에시스'(Poiesis)와 '미메시스'(Mimesis)의 두 예술적 행위에 대한 조화를 요구한다.³⁵⁾

카시러의 이러한 논리에서 볼 때, 건축에 있어 탈 현대주의(Post-Modernism)나 최근의 '초 기술 미학적 형태'(high-techno-aesthetic form)와 같이 실제의 세계에 대한 단순한(mere) 이미지의 표현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목표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도리어 불안정한 현대인의 심리 구조를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것 같다. 이러한 창조의 단순 행위 속에서는 어떤 '자-의식'(self-conscious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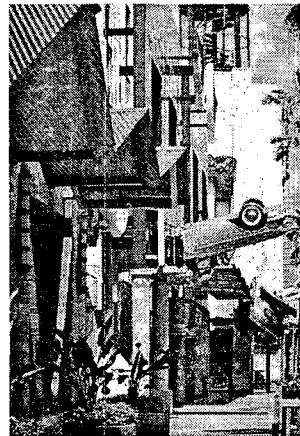


그림 5 모호한 기호적 표현의 건물들.

이나 '세계로의 나'(world - 'I)와 같은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사유와 자연에 대한 시적 재발견은 나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과학의 세계 속에서 모든 실재들은 아무런 감각적 지각없이 세계 내 주어진 단순한 사물로 소개되는 반면, '직관적 방식'(intuitive manner) 혹은 신화적 세계 속에서 사물과 의미는 마치

하나의 단일체로 서로 구분되어 존재치 않는다. 도리어 신화적 세계 속에서 예술작품이나 건축적 행위는 해석의 단편들 즉 기호들의 "유기적 결합의 고유 형식으로"(as an original mode of configuration),³⁶⁾ 단순히 추상-함축된 요소들과 무(無) 정신적 인상만을 제공하는 사물적인 것(factual reality)으로부터 그 자신을 구분한다. 이 경우 신화적 이미지의 세계 속에서 실제의 단편들 즉 단순한 사물(thing)은 '의미를 지닌 무

34) Ernst Cassirer (1994), p.143. "Language and science are abbreviations of reality; art is an intensification."

35) 'poiesis'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책을 참조. David Farrell Krell(1977),p.315-317과 Guy Planty-Bonjour(1983), p.19-29. 또한 대한 건축학회에 발표된 논자의 또 다른 논문 "Sonata for 'Essntia' and 'Existentia' in Modern Architecture," (1994)을 참조.

36) Ibid., p.24.

엇'(signification)과 동일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 아니라 “독립된 정신적 형태”로 그리고 “이성의 특성적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³⁷⁾ 카시러에게 있어, 현실속의 사물(thing)이라는 것은 이 같은 신화적 관점에서 바라봐 질 때 단순한 대상이라는 물리적 척도로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져 처음으로 존재로의 의미와 진실성을 보증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그 자체의 법칙과 진실성 뿐 아니라 그것의 영원한 의미성과 “사유의 새로운 자유”와 함께 “그 자체의 창조적 힘의 순수한 표현”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³⁸⁾

다시 말해, 신화적 사유의 세계는 시적인 상상(poetic imagination)과 감성 그리고 신념과 같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존재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신화의 세계는 우리에게 ‘오감(五感)적으로 자연스러운 존재’(sensuous-natural existence)³⁹⁾에 대한 감각적 인식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단순한 물질적 존재의 세계를 넘어서, 신화는 기호나 이미지의 형태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정신적 세계를 ‘유기적으로 결합’(configure)하며, 그 결과 “그 자체 스스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세계”⁴⁰⁾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 과정 속에서 단순한 물질적 존재는 ‘순수한 실체’(pure reality)로 그 모습이 바뀌어 지고, 순수한 형태는 또 다시 미학적 세계 속에서 ‘유기적 결합’(configure)이 되어진다. 그래서 신화의 세계 속에서 물질적 존재는 존재의 의미를 획득한 ‘자체의 우주적 세계’(self-contained cosmos)가 되며 존재의 해석과 해방에 대한 영원한 변증법적 과정(‘mythos’ of ‘poiesis’ and ‘poiesis’ of ‘mythos.’) 속에서 진실의 새로운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신화란 무엇이며 그것은 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혹은 예술적 형태들과 어떤 형식으로 관계하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특히 신화적 단편으로의 기호는 어떤 특성을 지니며 예술적 형태에 관계하는지를 철학자 카시러와 기호학자 퍼스의 사유를 분석하여 하나의 논리체계로 전개해 보려 하였다. 그 결과 나는 서로 다른 학문체계

에서 분리 연구되어온 신화와 기호에 대한 사유체계를 하나의 논리 단계로 아래와 같이 유추해 보았다.

첫째, 건축을 포함한 세계의 다양한 문화적 형태들은 사물에 대한 인간의 시적 해석, 특히 기호(sign)의 기능과 같은 해석의 단편들로 구성·결합되어 있으며, 바로 그 기호가 모든 그러한 것들 속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힘을 발휘한다.

둘째, 기호란 추상적 관찰을 통해 사물의 의미를 드러내어 놓는 표상이며 발언으로, 해석이라는 기호의 본유적 창조 특성을 통해 또 다른 기호 창조를 가능케 한다. 즉 기호 해석을 통한 표상이란 이 세계의 모든 변화를 결정하는 창조에 대한 힘인 동시에 인식의 중재성과 영속성 모두의 가치를 동일하게 갖는다.

셋째, 이러한 시적 해석을 통해 창조된 기호들의 주의(manifestation) 혹은 기호들의 시적 질서잡힘을 신화라 한다.

넷째, 그래서 신화란 세계에 출현된 객관적 사물들의 모든 다양성들 속에서 그 자체를 명언하는 인간이 내린 시적해석의 한 본유적 형태이다. 또한 이러한 신화적 관점에서 바라봐 질 때 세계의 물리적 대상들은 처음으로 존재로의 의미와 진실성을 확보하게 된다. 즉 신화란 기호와 같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정신적 세계 혹은 해석이 ‘유기적으로 결합’(configuration)된 형태로, 그 자체 스스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세계를 표상함과 동시에 기호와 같은 3차음적 특성으로 새로운 인간의 문화적 삶은 물론 건축의 형태 표상을 결정하는 창조적 힘인 것이다.

이러한 세계 내 대상에 대한 신화적 사유를 통해 그것의 예술적 표상과 시적 드러냄의 한 예로 나는 풍수학자 최창조 교수의 감은사지와 그곳의 두탑 그리고 여주 신록사와 탑에 대한 가정적 해석을 들 수 있으며, 스페인 건축가 라파엘 모네오의 로마 박물관(Roman Museum)에 사용된 벽돌 재료의 사용 방식 그리고 일본 건축가 타다오 안도(Tadao Ando)의 주택 설계론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⁴¹⁾ 이러한 예들은 사물들이 예술적인

37) Ibid. “its independent spiritual form” and “the characteristic force of the logos.”

38) Ibid., p.261. “a pure expression of its own creative power” with “a new freedom of consciousness.”

39) Ibid., p.239.

40) Ibid., p.25. “its own self-made image worlds.”

41) 감은사와 여주 신록사에 대한 예는 교육방송에서 방영된 최창조 교수의 풍수기행을 참조하며, 모네오와 안도의 예는 기존의 그들을 소개하는 책들을 참조하여도 대략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좀 더 구체적 설명은 다음 논문의 주제로 여기서는 남겨두도록 하였다.

‘유기적 결합’(configuration)으로 표상되는 신화적 사유방식의 소개 외에 현대건축의 문화적 현대화로의 진행과 지역전통의 현대적 계승의 방식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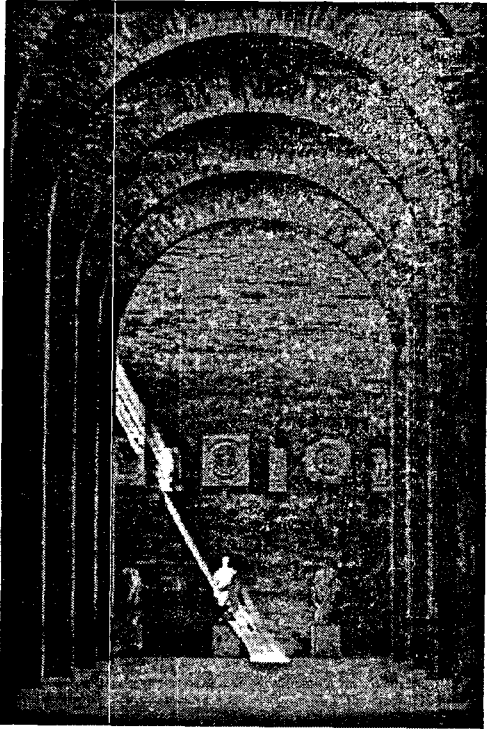


그림 6 라파엘 모네오의 Roman Museum: 줄눈을 두지 않는 전통적인 로마식 벽돌쌓기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대예술의 한 감각적 특징인 ‘긴장’이나 ‘확장성’을 동시에 벽은 잘 표현하고 있다. 즉 모네오의 전통적 재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표현된 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도시 설계에 있어 ‘신화시적인 사유와 상상’(mythopoetic consciousness and imagination)이란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지는 것처럼 원시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과학적인 시스템에서가 아니라 시적인 질서 속에서 세계를 다시 한정시키려는 노력과 같다. 그래서 그것이 표상하는 것은 실험적으로 과학에 의해 밝혀진 진실보다 우리에게 부족한 가치로 다가오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다. 오늘날 만약 신화시적인 가치가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그것이 논리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의 기술 중심적 삶이 모호한

실증주의와 실용주의로 진리의 객관성을 감각적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프램톤(K. Frampton)이나 포피리오스(D. Porphyrios), 베슬리(D. Vesely) 그리고 고메즈(A. P. Gomez) 등 최근의 여러 건축이론가들의 글에서 어렵지 않게 보이는 건축에 있어 신화적 영역의 강조, 특히 지난 2세기의 역사적 진행을 통해 현대건축이 지닌 ‘수학적이며 미학적인 표상’으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하는 상징적이며 ‘신화시적’인 영역의 회복에 대한 강조는 바로 비논리적이며 모호한 개념의 세계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논의해 온 신화의 해석적 힘과 기호와 같은 창조의 힘에 대한 강조와 제시로 받아드려야 될 것 같다. 바로 건축의 문화적 현대화를 위해 건축에서의 신화(myth)란 단어의 강조 사용은 이러한 의미로 정의되어야 할 것 같다.

<REFERENCES>

1. Justus Buchler. ed. Philosophical Writings of Peirce.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55.
2. Hanna Buczynska-Garewicz. " Peirce's Idea of Sign and the Cartesian Cogito." in J. Pelc, T. A. Sebeok, E. Stankiewicz, & T. G. Winner. eds. Sign, System and Function: Papers of the First and Second Polish-American Semiotics Colloquia. (p.37-47). New York: Mouton, 1984.
3. Ernst Cassirer. The Philosophy of Symbolic Forms: vol.2: Mythical Thought. New Haven: Yale University.
4. Ernst Cassirer. An Essay on Man: An Introduction to a Philosophy of Human Culture. New Haven: Yale University, 1944.
5. Ernst Cassirer. Language and Myth. New York: Dover, 1953.
6. Burton Feldman and Robert D. Richardson. The Rise of Modern Mythology 1680-1860.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1972.
7. Kenneth Frampton. "Towards a Critical Regionalism: Six Points for an Architecture of Resistance." in Hal Foster. ed.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Seattle: Bay Press, 1983.

8. Emery George. "Ernst Cassirer and Neo-Kantian Aesthetics: A Holistic Approach to the Problems of Language and Art." in R. W. Bailey, L. Matejka, & P. Steiner. eds. The Sign: Semiotics Around the World. Michigan: Slavic Contributions, 1978.

9. Alberto P. Gomez. Architecture and the Crisis of Modern Science. Massachusetts: MIT Press, 1990.

10. James Hoopes. ed. Peirce on Signs: Writings on Semiotic by Charles Sander Peirce. North Carolin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991.

11. David Farrell Krell. ed. Martin Heidegger: Basic Writings from Being and Time(1927) to the Task of Thinking(1964).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7.

12. Charles Sander Peirce.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 Peirce(vol. 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65.

13. Guy Planty-Bonjour. "Hegel's Concept of Action as Unity of Poiesis and Praxis." in L. S. Stepelevich & D. Lamb. eds. Hegel's Philosophy of Action(p.19-29).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1983.

14. Demetri Porphyrios. "Classicism is not a Style." Architectural Design. vol 52, 1982, p. 51-56.

15. Paul Ricoeur. History and Truth.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5.

16. Dalibor Vesely. Architecture and the Conflict of Representation. AA Files, no.8, 1985, p.21-38.

A Study on the Meaning of Myth and Sign in the Matter of Cultural Modernization of Architecture

- focused on the thinking of Ernst Cassirer and Charles Sanders Peirce -

Byun, Tae Ho
(Sungkwan University)

Abstract

Vesely explains, the main source of our confusion and nihilism comes most probably from the ambiguous relationship between modern architecture, technology and aesthetics. Also, to overcome such crucial problems, many theorists recently emphasize to take part in cultural civilization and to preserve creative genes of great culture that is based on our interpretation of 'ethical and mythical nucleus of mankind,' rather than in technical modernization that constitutes a sort of subtle destruction of mytho-ethical nucleus of a society. They for architecture also strongly stress on a mythopoetic imagination and an ontological construction of building, which could make a form symbolic and mythical rather than mathematical and aesthetic representation.

On this point, 'myth' becomes a vital idea for constructing and construing architectural form and space. And it is also one of the essential concepts to understand both the motive power of cultural continuation of place and the meaning of architecture. Nevertheless, its meaning and the citation of word in architectural essay are still obscure. It might be because the original concept of myth not only has been lain in the matter of philosophical contemplation.

Thus, the intention of the research is focused on lightening the meaning of myth in architectural term. Especially, it is, first, concentrated on interpreting philosopher Ernst Cassirer's reflections which were written in order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ythical consciousness' for the world's cultural civilization. And, the second, it will continue to interpret the myth as 'a sign within the semiotic concept of Charles Sanders Peirce, and further to emphasis the significance of mythic signs for the continuance of artistic and cultural idea including architecture.

The contents of the paper is not that of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methodology, rather architectural philosophy and epistemology. Nevertheless, in regard to architecture, the research will, against today's un-discriminated use of symbolic motifs and instrumental representation of form, suggest a concrete architectural and aesthetic theory of myth and sign, especiall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a of semiology and the function of cultural continuity.

Keywords : myth, mythical consciousness, sign, configuration, Ernst Cassirer,
Charles Sanders Peirce
